

조선어불완전명사의 로어번역에서 제기되는 몇가지 문제

리명용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나라마다 말에서 특성이 있고 알맞는 어휘들이 있는것만큼 번역도 그에 맞게 하여야
지 덮어놓고 직역만을 할것을 요구하여서는 안됩니다.》(《김정일전집》 제16권 120페이지)

해당 언어의 문법적요구에 맞게 외국어문장을 정확히 구성하고 문장이 나타내는 사상을 명백하게 표현하기 위해서는 외국어를 모국어와의 대비속에서 깊이 연구하여야 한다.

대비언어학은 외국어를 모국어와 대비연구한데 기초하여 외국어습득과 사용과정에 미치는 모국어의 작용형태와 성격을 분석하고 알맞는 언어학적대비를 제기함으로써 외국어교수를 과학화하는데 이바지한다. 또한 번역과정을 과학적으로 분석한데 기초하여 두 언어의 일정한 단위들의 대응을 설정하는 번역방법과 번역수법을 제기함으로써 번역리론을 과학화, 합리화하는데 이바지한다.

조선어와 로어의 대비언어학연구에서 품사대비나 구조대비, 문장대비도 중요하지만 조선어불완전명사의 로어대응에 대한 연구도 외국어교수와 번역실천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그것은 조선어에서 불완전명사들은 그 분류가 다양하며 의미 또한 다양한것으로 하여 그것을 로어로 번역하는데서 품사의 일대일대응으로만 이루어지지 않기때문이다.

실례로 조선어의 불완전명사 《줄》하나만 놓고보아도 《-ㄴ, -ㄹ》형뒤에 쓰이며 《사실, 사태, 방도, 방법, 속생각》 등의 다양한 의미를 나타낸다.

예: 동생은 트랙토르를 운전할줄 안다.

Младший брат умеет управлять трактором.

불완전명사 《줄》에 대응될수 있는 로어단어 《мочь, можно, уметь, успеть, удастся, в состоянии, в силах, способен(-а, -о, -ы)》들은 자기의 고유한 의미적특성으로 하여 일정하게 차이가 나게 된다.

로어에서 조동사 мочь는 주로 행동수행의 가능성이 행동의 수행자에 의존한다는것을 나타내며 술어적부사 можно는 무인칭술어로서 일정한 조건에서 행동수행의 가능성만 지적한다. 조동사 уметь는 동사 미완료태미정형과 함께 쓰이며 《자기가 가지고있는 능력》으로 하여 할수 있음을 나타내고 успеть는 동사 완료태와 함께 쓰이며 제한된 시간안에 그 어떤 행동을 수행할수 있음을 나타내며 удастся는 동사완료태와 결합되어 쓰이며 행동수행조건이 어려워도 그를 극복하고 수행할수 있음을 나타낸다.

또한 단어결합 в состоянии는 명사자체가 가지고있는 어휘적의미와 관련하여 현재상태에서 그 어떤 행동을 할수 있음을 나타내고 в силах는 《자기 건강이 허락하여》 그 어떤 일을 할수 있음을 나타내며 형용사 способен(-а, -о, -ы)는 《재간, 능력이 있어》 일을 할수 있음을 나타낸다.

그런데 이러한 다양한 의미에 맞게 정확히 대응을 올바르게 주지 못하고 그중에서 《방법》의 의미 하나만으로 번역한다면 해당한 문장이 전달하려고 하는 사상을 정확히 줄

수 없게 된다. 따라서 해당한 언어정황에 따라 해당한 대응을 찾아낼수 있도록 불완전명사 《줄》의 의미에 대한 대응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정확히 알고 그에 맞게 번역하도록 해야 한다.

조선어에서의 불완전명사는 명사로서의 품사적특성을 완전히 갖추지 못한 명사를 이르는 말이다.

조선어불완전명사가 자립적단어와 구별되는 가장 중요한 차이는 자립적단어가 그 자체만으로도 완전한 명명적단위로 되지만 불완전명사는 그자체가 명명적단위로 되지 못한다는데 있다. 다시말하여 자립적단어는 현실의 대상, 현상, 행동, 상태, 성질 등을 직접 명명하지만 불완전명사는 그것을 직접 명명하지 못하고 그앞에 오는 단어와 결합하여서만 의미를 나타낸다.

그러므로 자립적으로는 쓰이지 못하고 문법적형태조성도 완전하지 못하며 다른 자립적단어와 결합하여서만 일정한 어휘적의미를 나타내는 여기에 이 단어부류를 《불완전명사》라고 부르게 되는 근거가 있다.

조선어불완전명사는 의미적전지에서 여러가지 특성을 가지고있다. 이 특성은 물론 불완전명사가 자립적으로 쓰이지 못하는데로부터 생겨나는것이다.

조선어불완전명사 《넉》의 뒤에는 위격로 《에》만 붙을수 있지만 《아침-넉-에》 불완전명사 《것》의 뒤에는 여러가지 격로가 자유롭게 붙을수 있다. (《가는-것-이》, 《가는-것-을》, 《가는-것-의》, 《가는-것-으로》) 이것은 조선어의 불완전명사 《넉》과 《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적특성이 다르기때문이다.

조선어에서 불완전명사가 가지고있는 어휘적의미는 크게 4가지로 갈라볼수 있다.

첫째로, 불완전명사들은 장소, 시간, 원인, 비교, 정도, 목적 등 상황적의미를 나타낸다.

시간적의미를 나타내는 불완전명사들로는 《결, 경, 김, 나절, 넉, 내, 말, 초, 무렵, 적, 중, 즈음, 지, 제, 차, 참》 등이 있으며 공간적의미를 나타내는 불완전명사들로는 《데, 내, 녀, 중, 쪽, 바로》 등으로서 여기에서 《내, 녀, 중》은 시간적의미와 공간적의미를 함께 가진다. (기한내에 - 공장내에, 해질녘에 - 동녘하늘에)

원인의 의미를 나타내는 불완전명사들로는 《탓, 톡, 통》 등이 있으며 (날씨탓도 아니야, 알력이 있나?, 문을 두드리는통에) 비교, 정도의 의미를 나타내는 불완전명사들로는 《만, 만큼, 만치, 쯤》 (주먹만 한, 어른만큼, 반시간쯤) 등이 있다.

이 부류의 불완전명사뒤에 격로가 붙는것은 제한적이다.

둘째로, 불완전명사들은 말하는 사람에 의하여 진술된 언어행위의 내용이 객관적현실에 대하여 가지는 여러가지 양태적의미를 나타낸다.

불완전명사에 의하여 표현되는 양태적의미라는것은 확신, 불확신, 가능, 불가능, 당연성, 필요성, 불가피성, 의무성, 추측, 념원, 동경, 희망 등을 통털어서 이르는 말이다.

여기에는 불완전명사 《둥, 리, 망정, 번, 법, 사, 상, 손, 수, 줄, 척, 체, 채, 뿐, 양, 대로》 등이 있다.

양태적의미를 가진 불완전명사들은 앞의 규정형과 결합하여 문장에서 이야기되는 내용과 현실과의 호상관계에 대한 말하는 사람의 주관적태도를 나타냄으로써 말과 글의 표현을 더 생동하게 해주며 표현의 감정 - 정서적뜻빛갈을 강조해준다.

셋째로, 체언적기능을 하는것과 관련되는 불완전명사 《감, 것, 노릇, 바, 자, 조, 측,

해, 따위, 또래》등은 대상적의미를 나타낸다.

이 부류의 불완전명사의 특성은 어떤 대상, 현상, 행동, 과정들을 추상적으로 대상화하여 나타낸다는데 있다.(미안한감, 긍지감, 생각하는것, 중요한것, 새것, 모든것, 이것…)

여기서 불완전명사 《것》은 대상적의미를 가지기도 하고 양태적의미를 가지기도 하는 다의적인 불완전명사로 된다. 이러한 명사의 뒤에는 격토, 도움토가 제한없이 붙을수 있는것이 특징이다.(노릇-을, 노릇-이, 노릇-에, 노릇-의, 노릇-만, 노릇-부터, 노릇-도…)

넷째로, 불완전명사들인 《당, 발, 부, 산, 생, 작, 저, 행, 용》은 한자가 가지고있는 본래의 어휘적의미를 가지는것들로서 행동, 과정의 의미를 나타낸다.

이 불완전명사들은 우에서 본 불완전명사들과는 다른 특성을 가지는데 이 단어들은 명사의 절대격형태를 취한 일부 자립적단어와 결합하여 쓰인다.

이 부류의 불완전명사들은 뜻글자인 한자가 가지고있는 어휘적의미로 말미암아 그자체가 문맥밖에서도 명명적기능을 할수 있다.

례: 발 - 떠나다, 부 - 발행, 산 - 제품, 작 - 짓다

이렇게 조선어의 불완전명사들은 매우 다양할뿐만아니라 그것이 가지고있는 의미 또한 매우 다양하다. 그러므로 이러한 명사들을 로어로 대응시키는 문제도 역시 간단하다고 볼수 없다.

시간, 공간, 원인, 정도, 행동과정, 대상, 양태적의미를 가지고있는 조선어불완전명사는 확대규정어를 가지지 않는 한에서 거의 모든 불완전명사의 로어대응이 《전치사 + 명사》형태로 이루어지게 된다.

그러나 조선어불완전명사는 언어행위에서 명사로서의 품사적표식이 완전히 갖추어져 있지 못한것으로 하여 항상 《규정어 + 불완전명사》의 단어결합으로써만 쓰이게 되며 따라서 그에 대한 로어대응은 어디까지나 의미적 및 문맥적대응으로 되어야 하며 의미-문장론적특성에 맞게 정확히 번역하도록 하는것이 중요하다.

이 글에서는 많은 조선어불완전명사들 가운데서 상황적의미를 가진 불완전명사들과 행동, 과정의 의미를 나타내는 불완전명사들의 로어번역에서 제기되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 보려고 한다.

우선 조선어의 불완전명사들중에서 상황적의미를 가진 일부 불완전명사들은 다음과 같이 번역할수 있다.

상황적의미를 가진 불완전명사들에서 자주 보게 되는 《무렵》은 《어떤 현상이나 상태가 이루어지는 일정한 시기나 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그것을 전후한 때》라는 어휘적의미를 가지며 그앞에 명사절대격, 동사규정형과 결합되면서 격토 《에》가 올수 있으며 《녁》은 어떠한 때의 《무렵》이라는 의미를 가지면서 시간적의미를 가지는 명사의 절대격과 결합하여 그뒤에 격토 《에》가 올수 있다. 한편 《경》은 어떤 상태, 현상이 이루어지거나 벌어지는 일정한 시기나 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그것을 《전후한 때》라는 어휘적의미를 가지면서 시간적의미를 가진 명사절대격형과만 결합하는데 그뒤에는 격토 《에》와 도움토 《부터, 까지》 등이 올수 있는것으로 하여 이 불완전명사들은 의미적으로나 그 결합에서 매우 비슷하다.

따라서 이러한 불완전명사들은 로어에서 일반적으로 《…경에, …무렵에, …직전에》의 의미를 가지는 전치사 《к》와 《…가까이에》의 의미를 가지는 전치사 《под》, 시간을 나타내는

전치사 《на》와 명사 《закат》(해가 지는것, 해질무렵), 《рассвет》(동틀무렵, 새벽)가 결합된 구조나 시간부문을 이끄는 접속사들을 가진 종속복합문구조로 대응될수 있다.

례: 해질무렵에 나는 마침내 고향집뜨락에 들어섰다.

К вечеру наконец я вошел во двор родного дома.

새벽녘이면 우리는 일터로 나가곤 하였다.

Под утро мы выходили на работу.

날이 밝을녘에 문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На рассвете в дверь постучались.

이 실례에서 보는바와 같이 로어에서 к, под, на와 같은 전치사들은 다같이 《…경에, …무렵에, …직전에, …가까이에》라는 의미를 가지는것으로 하여 조선어불완전명사 《무렵, 녘, 경》에 의미적으로 완전히 일치하며 서로 대응될수 있다.

또한 로어에서 부사 《примерно》는 시간을 나타내는 명사와 결합하여 《약, 대략》라는 뜻을 나타내므로 우의 실례에서와 같은 《전치사 + 명사》의 단어결합앞에서 쓰일수 있으며 《…부터, …까지》의 의미를 가지는 전치사 《от, до》와 결합된 구조에도 올수 있다.

례: 1925년경부터 — примерно с 1925-ого года

1925년경까지 — примерно до 1925-ого года

이와 함께 시간접속사를 가진 복합문으로도 구성할수 있다.

례: 일이 끝날무렵에 그들이 도착하였다.

Когда заканчивали работу, они прибыли.

날이 밝아올녘이면 마른 풀냄새가 더 세게 풍긴다.

К тому времени, когда светит солнце, то запах сена чувствуется сильнее.

첫번째 실례에서와 같이 불완전명사 《무렵》이 시간부문을 가진 로어종속복합문과 대응되는 경우 부문의 동사—술어로는 미완료태동사가 오게 된다. 그것은 《끝날무렵》이 행동의 결과나 완결을 의미하는것이 아니라 아직 행동이 끝나지 않았다는것을 의미하기때문이다.

두번째 문장에서 불완전명사 《녘》이 동사의 규정형과 결합되는 경우 로어에서 《к тому времени, когда》로 혹은 완료태 또는 미완료태부동사구로 대응시킬수 있다.

조선어에서 불완전명사들이 동사의 규정을 받는 경우 로어에서는 형동사구나 부문으로 대응되는 경우도 있는데 불완전명사의 의미에 따라 해당하는 의미를 가진 부문을 연결해주는 접속사나 접속어를 서로 다르게 선택할수 있다.

불완전명사들인 《적》, 《결》, 《김》, 《지》, 《제》, 《차》, 《참》 등은 그 의미상 서로 비슷한 시간의 의미를 가진다.

조선어불완전명사에는 《어떤 동작이 진행되거나 어떤 상태가 나타나있는 때》를 의미하는 《적》은 《있은적-이, 떠날적-에, 말한적-은, 만난적-도》와 같이 뒤에 격토, 도움토가 붙거나 토없이 쓰이기도 한다. 그러므로 조선어불완전명사 《적》을 로어에서는 시간의 의미를 표현하는 각이한 문장구조로 대응시킬수 있다.

례: 내가 모스크바에 있을적에 그와 같은 책을 몇권 읽었다.

Когда я был в Москве, я прочитал несколько таких книг.

나는 그런 경우를 생각해본적이 없었다.

Мне никогда не приходило в голову и подумать об этом.

나도 그의 강의를 들은적이 있었다.

Я тоже слушал однажды его лекцию.

실례들에서 보는바와 같이 불완전명사 《적》에 대한 로어대응은 주로 когда를 가진 시간부문이나 기타 여러가지 문장구조로 이러한 시간적의미를 나타낼수 있다.

불완전명사 《적》이 형용사와 결합하여 쓰이는 경우 《그때, 그무렵》이라는 의미로서 로어에서는 전치사 《в》의 도움으로 《어릴적에 — в детстве》, 《젊었을적에 — в молодости》 등과 같이 표현하거나 접속사 когда를 가진 시간부문으로 표현하기도 한다.

조선어불완전명사 《결》은 《때나 사이에》라는 어휘적의미를 나타내며 앞에는 명사절대격, 동사규정형이 결합되며 뒤에는 격로 《에》만이 올수 있는데 이러한 구조들은 로어에서 《때, 시간》의 의미를 나타내는 전치사 《сквозь》(…하는) 사이에), 《при》(때에, 하에, 환경에서), 《во время》(시기, 때)를 리용하거나 《когда》를 가진 시간부문으로 대응시킬수 있다.

예: 잠결에 나는 누군가의 발자국소리를 들었다.

Сквозь дремоту я уловил чьи-то шаги.

어느결에 기차가 역에 도착하였는지 알수 없었다.

Не понял, когда поезд прибыл на вокзал.

불완전명사 《결》의 앞에 관형사 《어느, 무슨》이 결합되고 격로 《에》만이 올수 있는데 이때 이 단어결합이 들어간 문장이 단일문이면 《незаметно, нечаянно, ненамеренно, случайно》, 《как-то》, 《в какой-то момент》 등으로 대응되고 복합문인 경우에는 접속사 《когда》, 《как》를 가진 부문으로 대응시킬수 있다.

예: 어느결에 승용차는 평양을 가까이에 두고있었다.

Незаметно машина приближается к Пхеньну.

그는 어느결에 그에게 손을 내밀었는지 알지 못하였다.

Он не заметил, как протянул ему руку.

어떻게 된 기회의 어휘적의미를 나타내는 불완전명사 《김》은 주로 동사의 규정형과 결합하고 그뒤에 격로 《에》만이 올수 있으므로 로어에서 복합문이나 《전치사+명사》단어 결합으로 대응시킬수 있다.

예: 말이 난김에 나는 그에게 언제 떠나겠는가를 물었다.

Коли(раз) пошел разговор, я спросил, когда он уйдет.

배고픈김에 그는 저도 모르는 사이에 세번째 그릇도 비웠다.

Изголодавшись, он незаметно для себя опустошил и третью тарелку.

레문에서 첫번째 문장은 문맥적으로 조건의 의미를 가지므로 접속사 коль (коли)(만 일에 …한다면)를 가진 문장으로 그에 대한 대응을 설정할수 있으며 이러한 부등가대응으로써는 접속사 раз(일단 …한이상, 일단 …한바에야)와 단어결합 пользуясь случаем(…의 기회를 리용하여)도 속할수 있다.

두번째 문장에서 《배고픈김이라》는 의미는 문맥적으로 볼 때 《배가 고팠기때문에》라는 원인의 의미를 가지므로 완료태부동사구로도 그 대응을 줄수 있다.

《심리적상태 · 그 무엇을 동반 · 야기시키는 상태》를 표시하는 전치사 в와 《…때문에,

…로 하여》로 원인의 의미를 나타내는 전치사 от, 《…를 받아》라는 작용의 의미를 가지는 전치사 под가 명사들과 결합하여 《기회》의 의미를 나타낼수 있다.

레: 기쁨김에 — от радости

결김에 — в порыве гнева

술김에 — под влиянием вина(в состоянии опьянения)

불완전명사 《지》는 《앞에서 말한 행동이 있는 그때》라는 어휘적의미를 가지며 앞에 동사규정형이 오고 뒤에 토가 붙지 않는다. 이 불완전명사는 로어의 시간부문을 이끄는 접속사 с тех пор как(…한 때로부터), после того как(…한 후부터, …한 후)나 《후에, 하고 난 뒤에》의 의미를 가지는 전치사 《после》를 리용하여 대응시킬수 있다.

레: 그가 원산을 떠난지 2년이 되었다.

Прошло 2 года, с тех пор как он уехал из Вонсана.

(После его ухода из Вонсана прошло 2 года.)

불완전명사 《차》는 동사 《던》규정형 다음에 쓰이여 하려고 하던 《순간》, 《계제》, 《기회》와 같은 뜻을 가지는것으로 하여 로어에서는 《в то время, когда》를 가진 부분으로 대응시킬수 있다.

레: 내가 공장에 가려던차에 그를 만났다.

В то время, когда я собирался на завод, кстати встретил его.

로어에서는 《그 무엇을 하려던 순간, 기회》를 나타내는 어휘적대응이 조선어불완전명사 《차》처럼 하나의 단어로가 아니라 단어결합과 문법적형태로밖에 이루어질수 없다.

로어동사 собираться는 《…을 하려고 하다》로서 언어행위안에서 술어로 될뿐 《하려고 하던 순간》이라는 의미를 나타낼수 없다. 그러므로 시간상황어부문을 이끄는 접속사 《когда, как》와 함께 문장을 구성하여 해당한 의미를 표현하게 되는것이다.

불완전명사 《참》은 앞에 명사, 대명사의 절대격, 관형사 《어느》, 동사의 규정형 등이 결합되어 격토 《에》가 오면서 《행동을 하는 동안》의 어휘적의미를 가지므로 이 경우 로어에서는 전치사 《в + 전치격》이나 접속사 пока를 가진 문장으로 대응시킬수 있다.

레: 그는 내가 책을 읽고있는참에 상점에 갔다왔다.

Пока я читал книгу, он сходил в магазин.

이번참에 — на этот раз

쉴참에 — в перерыве (во время отдыха)

이밖에도 시간의 의미를 나타내는 불완전명사들로는 뒤에 격토 《에, 로》 등이 오면서 《일정한 기간이나 동안》이라는 시간을 나타내는 《내》와 명사절대격과 함께 흔히 격토 《에》와 결합하면서 어떤 기간의 《끝》을 나타내는 《말》, 어떤 기간의 《처음, 초기》를 나타내는 《초》 등이 있다. 이러한 불완전명사들은 로어에서 해당한 전치사 《в (시간 · 기간에, …기한안에, 동안에, 사이에), за(동안에, 기간에), раньше(не позже)(이전에)》나 《в конце(말에)》, 《в начале(초에)》로 대응시킬수 있다.

레: 우리는 기한내에 맡겨진 과제를 넘쳐 수행하였다.

Мы перевыполнили порученное задание в срок.

제1단계공사를 한달내에 완성해야 한다.

Стройку первой очереди нужно закончить раньше месяца(за месяц).

이 레문들에서 전치사 《в, внутри, за》는 시간을 나타내는 명사와 결합하여 《어떤 기한안에, 기한전에》라는 의미를 가지는것으로 하여 등가적대응으로 번역할수 있으며 부사 《раньше, не позже》는 《…이전에, …늦지 않게》라는 뜻을 나타내므로 서로 부등가적으로 대응시킬수 있다.

불완전명사 《말》과 《초》는 로어의 명사와 어휘적으로 일치되므로 로어에서 그 대응은 《в конце》, 《в начале》의 구조로 대응시킬수 있다.

레: 그것이 아마 9월말에 있는 모임에서였다고 기억된다.

Помнится, это было на собрании, пожалуй, в конце сентября.

그해초 아버지는 나에게 장차 무엇이 될 생각인가고 물었다.

В начале того года отец спросил, кем я буду.

또한 사람마다 자기 의사를 표현하는 방법이 같지 않기때문에 불완전명사 《초》는 같은 사물이나 현상을 표현하는데서 꼭같은 언어형식을 취하지 않고 《один из первых дней》 등과 같은 표현을 리용하여 대응시킬수도 있다.

또한 조선어의 불완전명사들중에서 행동, 과정의 의미를 나타내는 불완전명사들은 다음과 같이 번역할수 있다.

행동, 과정의 의미를 가진 불완전명사들은 한자가 우리 말에 들어와 굳어진것으로서 그 의미는 이 불완전명사들이 가지고있는 본래의 한자의미와 관련되는 어휘적의미이다.

행동, 과정의 의미를 가진 불완전명사들로는 《당, 발, 부, 산, 생, 작, 중, 행, 용》 등을 비롯해서 적지 않은 불완전명사들이 있다.

이러한 불완전명사에 대한 로어대응은 전치사 혹은 명사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그것은 전치사가 자립적인 어휘적의미를 가지지 못하지만 어휘적의미를 완전히 잃어버리는것은 아니며 전치사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일정한 어휘적의미를 보존하고있기때문이다.

《이름수가 나타내는 대상마다 차례지는것》의 어휘적의미를 가지는 불완전명사 《당》은 앞에 명사절대격(단위명사)이 결합되고 뒤에 토가 붙지 않는것이다. 이 불완전명사는 로어에서 《계산의 단위》를 나타내는 전치사 《с + 생격》, 《на + 대격》을 가진 구조로 대응될수 있다.

레: 정보당 수확고는 얼마입니까?

Какая урожайность с одного чонбо?

인구1인당 생산량은 작년에 비해 훨씬 늘어났다.

Продукция на душу населения гораздо увеличилась, чем в прошлом.

불완전명사 《발》은 《수송수단의 출발점》, 《전신전화 등의 발신》이라는 어휘적의미를 가지며 뒤에 토가 붙지 않는다. 이 불완전명사는 로어에서 《원천, 출발점》을 의미하는 전치사들인 《из, от + 명사생격》을 가진 구조로 대응될수 있다.

레: 평양발 원산행열차 — поезд из Пхеньяна в Вонсан

2월 10일발 조선중앙통신 — сообщение ЦТАК от 10 февраля

이 실례에서와 같이 전치사 из는 《수송수단의 출발점》을 의미하는 경우에 쓰이며 전치사 от는 《전신전화 등의 발신》을 의미하는 경우에 쓰인다. 이밖에도 《전신전화 등의 발신》을 의미하는 불완전명사 《발》은 삽입어로 쓰이는 《как》(…에 의하면, …바와 같이)에 의해 대응될수 있다.

례: 12월 12일발 조선중앙통신사 보도에 의하면 오늘 인공지구위성 《광명성-3》호의 발사가 있었다.

Как сообщает информационное агентство ЦТАК 12 декабря, сегодня был произведен запуск искусственного спутника Земли 《Кванмёнсон-3》.

불완전명사 《부》도 역시 불완전명사 《발》과 류사한 의미로서 《바로 그날에 발행된것 또는 바로 그날에 우편물이나 전신을 받은것》의 어휘적의미를 가지며 뒤에 토가 붙지 않는다. 이 경우에 불완전명사 《발》과 같이 원천, 출발점을 의미하는 전치사 《от + 명사생격》을 가진 구조로 대응될수 있다.

례: 4월 15일부 《로동신문》 - газета 《Нодонсинмун》 от 15-ого апреля

앞에는 명사절대격이 오며 뒤에 토가 붙지 않는 《생산물, 제품》의 어휘적의미를 가지는 불완전명사 《산》은 로어에서 《생산, 상품》이라는 대상적의미를 가진 명사 производство(생산, 제작), товар(…품)에 의하여 번역될수 있다.

례: 국내산자동차 — автомобиль отечественного производства

국산품 — товары отечественного производства

불완전명사 《생》은 《…년 …월 …일에 났음》을 의미하거나 《식물이 자란 해수》, 《몇학년 학생》이라는 의미를 가지며 뒤에 격토, 도움토가 붙을수 있다.

이 불완전명사는 로어에 그와 대응될수 있는 명사와 수사, 형용사들이 있는것으로 하여 다음과 같은 문장들로 번역할수 있다.

례: 이 나무는 20년생이다.

Это дерево двадцатилетнее.

그는 종합대학 2학년생이다.

Он второкурсник университета.

조선어에서 불완전명사 《작》은 《작품, 창작품》, 《농사작황, 그루》의 어휘적의미를 가지며 뒤에 토가 붙지 않는다. 로어에서는 《작품, 창작품》에 대응하는 단어 произведение가 있으나 경우에 따라 이 단어가 없이도 쓰이게 된다.

례: 고리끼작 장편소설 《어머니》—роман 《Мать》 Горького

올해에 우리 농장에서는 대풍작을 거두었다.

В этом году в нашем кооперативе собирали обильный урожай.

《수송수단이 가는 방향》의 어휘적의미를 가지는 불완전명사 《행》은 뒤에 토가 붙지 않는다. 이 불완전명사에 대한 로어대응은 형용사나 전치사와 명사결합으로 이루어질수 있다.

례: 신의주행 열차는 아침 9시에 출발합니다.

Поезд в Синичжу отправляется в 9 часов утра.

불완전명사 《용》은 《어떤 대상이 쓰이는 용도》의 어휘적의미를 가지며 앞에 절대격 명사가 결합되고 뒤에 토가 붙지 않는다.

이에 대한 로어대응은 《용도》의 의미로서의 전치사 《для》(…쓰기 위한)와 《на》(…용으로, 위한) 등의 도움에 의하여 이루어질수 있다.

례: 이 책방에는 아동용책들이 많다.

В этом книжном магазине много книг для детей.

나에게는 2인용 방이 요구됩니다. - Мне нужна комната на двоих.

수출용생산 производство на экспорт

비상용으로 для крайней необходимости

불완전명사 《중》은 《(여럿의) 가운데》, 《무엇이 계속 진행되는 과정》의 어휘적의미를 가진다. 조선어에서 이 불완전명사는 절대격의 명사, 수사, 대명사와 결합하여 쓰인다. 로어에서 이러한 구조의 구성은 로어에서 전치사들인 《среди》(동종의 사람이나 물건에) 섞여서, …가운데에), из》(전체의 부분)…가운데서, …중에서)》와 《по》(…에 가던 중에, 도중)의 도움으로 대응될 수 있다.

예: 그들중에는 어린 녀학생도 있었다. - Среди них была маленькая ученица.

그는 영웅중의 영웅이다. - Он герой из героев.

지금은 회의중이다. - Сейчас идет собрание.

로어에는 《행동의 진행과정》을 의미하는 즉 불완전명사 《중》의 의미를 대응할 명사가 없으므로 문법적전환수법으로써 다른 품사로 교체시켜 대응시킬 수 있다. 그것은 번역이 본질에 있어서 원어의 단어에 대한 일대일의 번역이 아니며 문장이 나타내려는 의미에 대한 번역으로서 이와 같은 품사교체는 등가관계를 설정하는 주요수법으로 되는 것과 관련된다.

이상에서 보는바와 같이 우리는 조선어의 다양한 불완전명사들에 대하여 더 잘 알고 그에 대한 로어문장표현을 대비적으로 깊이 연구하여 번역의 정확성을 높이며 사회주의 강국건설에 이바지할 수 있는 쓸모있는 외국어지식을 소유해나가도록 해야 할 것이다.

실마리어 로어, 조선어불완전명사